

# 옴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에 드러난 은닉의 미학과 신학적 함의\*

김순영(아신대)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성서신학과 현대 미학을 융합한 학제간 해석이다. 초점은 매끄럽게 정돈된 신학을 환호하는 신학과 현실에서 꺾끄럽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옴의 저항 언어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정성을 “은닉의 미학”<sup>1</sup>으로 전유한다. 즉 고통에 시달리는 옴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은닉성을 미학의 관점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공식화된 신학의 이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 논의는 옴기 해석의 고전적 주제인 신정론을 넘어서고 고통을 해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당하는 당사

\* 이 논문은 202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4S1A5B5A17040462).

1 “은닉의 미학”은 철학자 한병철의 책,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3)에서 제시한 “은폐의 미학”을 변용하여 ‘은닉의 미학’으로 고쳐 쓴 것이다. 원제는 Byung-Chul Han, *Die Errettung des Schö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2015).

자 또는 희생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지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sup>2</sup> 무엇보다 이 연구는 언제나 현실 속에 현존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순종하면 번영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공식화된 ‘매끄러운’ 긍정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처참한 재앙으로 산산이 부서져 저항하는 욱의 목소리가 충돌하여 만들어내는 ‘꺾끄러운’ 부정성의 미학적 예술성에 주목한다. 이는 욱이 발화하는 낯선 언어가 친구들과의 대화에 파열음을 내고, 공식화된 보은 신학의 질서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 사이의 신학적 갈등을 극대화하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고는 욱의 친구들이 옹호하고 전통적이고 공식화된 보은 논리에 대항하여 균열을 일으키고 타격을 가하는 공식화되지 않은 ‘반대 증언’을 들추는 것이다. 가시관을 쓴 상처투성이의 구원자 예수가 기독교의 진리이듯 욱의 저항과 하나님의 침묵이 일으키는 꺾끄러움의 부정성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미학적 사고를 반영한다.

연구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욱의 저항 언어로 발화된 꺾끄러운 진실과 숨으신 하나님의 미학적-신학적 교호성 탐구다. 이것은 욱의 친구들이 정답으로 제시한 공식화된 말들에 가려졌던 진실 폭로로 시작된다. 이는 욱의 고통에 의한 저항과 탄식의 내적 투쟁으로 발현되는 꺾끄러운 언어가 매끄럽고 산듯한 공식화된 신앙 언어에 불을 지르고 복잡성을 불어넣어 하나님 침묵과 은닉성을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

2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는 김순영, “욕기의 심미성과 탈신정론적 해석: <생고로드의 재판>과의 상호본문성을 중심으로”, 『주신신학논단』 (2025), 133-168을 보라. 이 논의에서는 이른바 신정론(theodicy)과 비신정론(anti-theodicy)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탈신정론’(post-theodicy)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제커리 브레이터먼(Zachary Braiterman) 등 ‘비신정론’ 용어로 고통과 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논의는 Eric Ortlund, “Exegetical Difficulty and the Question of Theodicy in the Book of Job”, *JESOT* 7,2 (2021), 90-112을 보라.

침묵으로 가시화된 하나님의 ‘은닉성’이 빚어낸 신학적 사색과 성찰의 지평 넓히기다. 즉 하나님의 가시성이 아닌 은닉성이 주관하는 부정성과 송고미의 재발견이다. 철학자 한병철의 지적처럼 매끄러움은 어떤 판단도 해석도 성찰도 필요하지 않거니와 어떤 깊음과 심오함도 없다. 그저 가공의 기술이고 상품일 뿐이다.<sup>3</sup> 왜냐하면 철학적 관점에서 “침묵은 무엇의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 무엇”이며 존재이자 실체이며,<sup>4</sup> 미학에서 침묵은 ‘뒤흔들고 파헤치고 의문을 제기하고 삶을 바꾸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이다.<sup>5</sup> 즉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은닉성은 가시성의 부정으로서 진실의 다른 면을 밝히는 변주다. 그래서 “부정성은 미를 구성하는 필수적”<sup>6</sup> 요소다. 이 지점에서 침묵의 하나님은 존재의 결핍이 아닌 또 다른 능동적 개입이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비존재가 아닌 존재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비가시적 표현이라는 뜻이다. 셋째, 읍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이 뿔어내는 예술적 긴장과 아름다움에 의한 교정과 비극적 비전 제시다. 예술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과 재앙이라는 부정성이 공존한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듯 번영과 재앙도 교차한다. 번영이 덧이 될 수 있듯 읍의 번영과 경건함도 덧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읍에게 닥친 재앙과 그의 저항 언어를 부서짐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은닉을 부정성의 예술로 읽는다.

이 논의를 위한 본문 범위는 읍의 저항과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비가시성이 공존하는 3-31장과 하나님의 가시성이 드러난 38-41장 단락

3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11-20.

4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최승자 옮김), (서울: 까치, 2017), 7-8, 18. 원제는 Max Picard, *Die Welt des Schweigens* (Erlenbach-Zürich: Eugen Rentsch, 1948).

5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17.

6 한병철, 윗글, 69.

이다. 논의 방식은, 읍기의 극적 구성의 큰 흐름을 다루되, 정교한 주해가 아닌 미학적 읽기다. 이는 전통적인 성서 비평 방법과 기계적인 신정론으로 읍기가 지닌 다층적인 모호성과 비극적 비전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서 미학적 읽기란 텍스트의 표면적 수사 분석을 넘어, 고통, 부조화, 저항, 침묵의 부정성(negativity)이 어떻게 진실을 폭로하고 신학적 숭고미를 드러내는지 추적하는 해석학적 작업이다. 이를 위해 한병철 등 현대 미학에서 도출한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분석 도구로 삼는다. 첫째, ‘매끄러움과 곱끄러움’의 개념을 통해 통속적 보은 신학의 허위와 읍의 저항 언어가 빚어내는 충돌을 재독해한다. 둘째, ‘은닉의 미학’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지니는 역동적 레토릭을 조명한다. 셋째, ‘아름다움에 의한 교정’ 가능성을 드러내는 폭풍 속 하나님의 현현(읍 38-41장)과 읍의 회개(읍 42:6)를 다룬다. 이 세 차원의 읽기는 세부적인 언어학적 분석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너무 빨리 읽거나 너무 느리게 읽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라는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의 말처럼 단어 하나하나 또는 구문법과 언어학적인 미시적 정밀함보다 읍의 저항 언어와 공명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극대화하는 요소로서 접근한다. 이는 미학에서 “예술 비평은 덮개를 들어 올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를 가장 정확하게 덮개로 인식함으로써 미를 직관하는 것”이며, 숨김과 드러냄의 동시성 — ‘거리 두기의 파토스’ — 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해석은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듯 이 연구는 매끄럽게 체계화되고 상품화된 ‘소비 종교’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고통과 상처, 저항과 숨음의 곱끄러움이라는 복

7 한병철, *윳글*, 48-51. 큰따옴표 안의 문장은 매체 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말을 한병철이 인용한 것이다.

잡성 일체를 제거하지 않는 지혜 신학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다.

## 2. 욕기 해석과 저항 전통의 맥락들

### 1) 완전한 의미를 거부하는 해석과 저항 전통

욕기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고대문학 중 하나지만, 쉬운 이해를 거부하는 책이다. 종교 철학자 마크 래리모어(Mark Larrimore)는 욕기를 “어떤 이해로도 완전한 의미를 거부하는 책”으로,<sup>8</sup> 데이빗 클라인스(David Clines)는 욕기를 “하나의 불덩이”라고 평했다. 왜냐하면 욕기는 산뜻한 질서를 깨부수고 조화로움을 교란하고, 우연과 불합리에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다.<sup>9</sup> 실제로 욕기는 통일성 논의부터 다양한 자료들이 합쳐져서 최종 본문으로 형성되었다는 추측까지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해석들이 넘쳐나고,<sup>10</sup> 계몽주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현대 문학과 사상에 중요한 텍스트가 되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갑작스러운 재난과 욕의 반응이 현대적인 재난에 대한 반성의 기준이 되었고, 현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욕의 언어에 담긴 사회적 비판 언어를 윤리나 정치적 관심사에 적용하며 탐구했기 때문이다.<sup>11</sup>

8 마크 래리모어, 『욕기와 만나다』 (강성윤 옮김), (서울: 비아, 2021), 24. 원제는 Mark Larrimore, *The Book of Job: A 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9 데이빗 클라인스, 『욕기 1-20』 (한영성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6), 9에서 재인용.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Books, 1989).

10 2000년대 이후 욕기 연구사에 대한 광범위한 소개는 하경택, “욕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 (2015): 264-298을 보라.

11 이와 관련된 연구는 Leora Batnitzky and Ilana Pardes, eds., *The Book of Job: Aesthetics, Ethics, Hermeneutics, Perspectives on Jewish Texts and Contexts 1* (Berlin: De Gruyter, 2015)를 보라. 특히 이 책의 서론에서 편집자 리오라 바트니츠키, 일라나 파르데스는 미학, 윤리, 해석학이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요약한다. 2장에 수록된

둘째, 욥 이야기에는 공식화된 보응 논리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항의, 분노, 투쟁, 저항 의식을 드러낸 인물들과 저항 전통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끄러움’의 미학과 결끄러움의 신학으로 명명해도 좋을 욥기의 저항 전통(counter tradition)은 갑작스러운 돌출이 아니다. 예컨대, 정의와 윤리 측면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이 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당신은 정의를 행하시는 재판장이 아니십니까?’라는 반문으로 정의에 대한 기준을 따져 물었다(창 18장). 이후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을 막아냈다(출 32:31-32; 출 33:15; 민 11:10-15). 이러한 저항 정신은 이후 시편의 시인들과 예언자들이 이어받았고, 이른바 공통 신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공존해 왔다.

저항 전통 관련한 대표적 신학자 노만 하벨(Norman C. Habel)은 욥기를 문학 텍스트로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혜 전통 내부의 긴장에 주목했다. 그는 욥을 전통적인 지혜문학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독립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로 읽었다. 즉 욥의 언어는 법정 소송 은유, 반어, 인유 등을 통해 질서에 순응하는 지혜가 아니라 질서의 부당함에 맞서는 저항 수사학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벨은 욥을 신의 침묵과 모순 속에서도 자신의 무죄와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주체적 신앙의 출현으로 본 것이다.<sup>12</sup> 욥은 고난

---

Leora Batnitzky, “The Book of Job: A Response to a Provocation”, 19-32에서는 욥의 고통이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응보의 논리라는 지배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의 언어가 어떻게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타자성’의 목소리가 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2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54-57, 60. 하벨의 욥기 주석은 문학적인 독해와 현대적 해석을 도입한 선구자적

을 견디는 인물의 원형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학적 견해에 도전하며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 기존의 신앙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저항적 모델인 것이다.<sup>13</sup> 즉, 욥이 기존 지혜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지혜를 탐색하는 인물로 읽혔다. 캐롤 뉴섬(Carol A. Newsom)도 욥의 저항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의와 진리를 모색하는 신앙적 투쟁으로 해석했다.<sup>14</sup> 이밖에 가장 최근 욥기의 저항 의식과 관련하여 욥기의 지배적인 개념이 어떻게 해체되는지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탐구되기도 했다.<sup>15</sup> 이처럼 욥기 연구는 본문 변화와 발전을 분석하는 통시성보다 현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공시성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 왔고, 이 논고도 이러한 해석학적 흐름을 반영한다.

## 2) 예술로서의 욥기와 미학적 접근

성서 본문은 시대마다 다양한 해석 방법론을 통해 새롭게 읽혀왔다. 욥기에 대한 미학 관점의 해석은 국외 학계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

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 13 Norman C. Habel의 최근 저작, *God, Trauma and Wisdom Therapy: A Commentary on Job* (Eugene, OR: Cascade Books, 2023)에서 욥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궁극에는 고통을 치유하는 상담자로 전환된다고 보고, 지혜문학의 복잡한 현실을 탐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은 <https://www.insights.uca.org.au/>을 보라(2025. 5. 7. 접속).
- 14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특히 뉴섬은 욥기 해석을 위해 러시아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문학 이론, 다성성(polphony)과 대화성(dialogism) 이론을 분석 틀로 삼고 이론적 설명과 실천적 분석을 활용했다. 이밖에 Carol A. Newsom, Kelly J. Murphy, and Brennan W. Breed(ed.), *The Book of Job in Context: Moral Imaginations in an Age of Turmo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45-161을 참고하라.
- 15 Cornelius Swanepoel and Johannes N. Vorste "Taking God to Court: Job's Deconstruction and Resistance of Dominant Id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and Theology* 84, no. 3-4 (2023), 1-18.

16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학(Aesthetics)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아름다움과 예술의 본질을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sup>17</sup> 미학은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해석학에서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이후 또 다른 전환점 된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예술 작품을 통해 진리 경험을 옹호하고, 미학이 해석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sup>18</sup> 또한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자 예술 이론으로서 합리성의 방해물도 아니다.<sup>19</sup> 바움가르텐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부터 본성으로서의 미학, 미적 훈련과 가르침, 미적 열정과 미적 교정, 미적 진리, 더 나아가 미적 확신까지 이론적 미학의 토대를 마련했다.<sup>20</sup> 따라서 미학은 고통과 같은 인간의 심층적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다.

- 
- 16 욕기와 미학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Leora Batnitzky and Ilana Pardes, Dan B. Allender and Tremper Longman III, *The Cry of the Soul: How Our Emotions Reveal Our Deepest Questions About God*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9); Troy W. Martin, "Concluding the Book of Job and YHWH: Reading Job from the End to the Beginning", *JBL* 137 (2018), 299-318; John McAteer, "Silencing Theodicy with Enthusiasm: Aesthetic Experience as a Response to the Problem of Evil in Shaftesbury, Annie Dillard, and the Book of Job", *The Heythrop Journal* 57, no. 5 (2016), 788-799를 보라.
- 17 미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카이 함머마이스터(Kai Hammermeister)의 책, 『독일 미학 전통: 바움가르텐부터 아도르노까지』(신혜경 옮김), (서울: 이학사, 2023), 12. 원제는 Kai Hammermeister, *The German Aesthe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미학 용어 정의는 12쪽에 근거한 필자의 한 문장 요약이다. "미학(aesthetics)"이라는 말은 '지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aisthesis)에서 유래한다. 18세기 예술 작품 및 미의 본질을 묻는 독립적인 철학 분과로 통합되어 미학으로 알려졌고, 감각 지각을 다루는 철학 이론을 지칭했다.
- 18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이길우 외 옮김), (서울: 문학동네, 2017), 232. 원제는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J.C.B. Mohr, 1960).
- 19 함머마이스터, 『독일 미학 전통: 바움가르텐부터 아도르노까지』, 30-31.
- 20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 『미학』(김동훈 옮김), 미학 원전 시리즈 1 (서울: 마티, 2019), 7-11. 원제는 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Aesthetica* (Frankfurt an der Oder: Kleyb, 1750).

이 맥락에서 읍기를 미학 관점으로 읽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미 리처드 헤이스(Richard B. Hays)와 엘렌 데이비스(Ellen F. Davis)는 어려운 본문 해석과 진리 문제, 특히 탈기독교 시대의 성서 읽기를 하나의 예술로서 인식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역설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sup>21</sup> 또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이상하게 기독교 미학(예술에 관한 기독교 철학)이란 없다”<sup>22</sup>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듯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sup>23</sup> 미학은 해석과 긴밀히 연결된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범주를 넘어 예술, 철학, 종교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때 아름다움은 미적 취향이나 예술적 쾌감에 의한 조화나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는 능력이고, 타인의 비참함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연민이다.

읍기는 쾌감이 아닌 부조화를 발산한다. 그 특이성은, 1-2장의 서사와 시문으로 구성된 읍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3:1-37:24) 발화되는 불협화음과 하나님의 침묵이 자아내는 부정성과 모호성이다. 미학에서 부정성과 모호성은 아름다움으로 인식되듯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에는 반드시 죽음이나 재앙 같은 켄끄러운 부정성이 공존한다. 따라서 부정성을 기꺼이 예술로 인식하는 미학적 사유에서 읍의 고통과 상

21 리처드 헤이스, 엘렌 데이비스(쓰고 엮음),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박규태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21), 11-17. 원제는 Ellen F. Davis and Richard B. Hays (eds.),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3).

22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신국원 옮김), (서울: IVP, 2010), 17. 원제는 Nicholas Wolterstorff,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87).

23 이 문장은 표도로 도스토옙스키(Fyodor M. Dostoevskii) 소설, 『백치』에 등장하는 인물 미쉬킨 공작의 말이다. 이 말은 선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 속 정신적 붕괴와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채 남는다는 철학적 신학적 주제를 압축한다. 독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것이다.

처, 부조화의 꺾끄러움은 예술적 아름다움이 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유동적인 진실(혹은 진리)로 이끈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의 장에서 미학적 읽기는 다층적 현실과 진리의 확장성을 가져오고, 신앙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반대로 종교가 어떻게 미학의 개념 확장에 기능하는지 둘 사이의 역동적 관계와 다차원적인 신학적 탐구를 돕는다.

### 3. 욱기의 꺾끄러운 부정성과 호응하는 미학 정신

#### 1) 욱기의 비극과 미학적 긴장

욱기는 하늘과 땅의 무대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 하나의 드라마로 결합한다. 욱기 장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욱기는 욱이 주인공인 한 편의 비극이다. “욱의 드라마”<sup>24</sup>에서 하늘 회의는 인간에게 가려져 있고, 땅의 일은 하늘 회의에 날낱이 보고된다. 그래서 욱기는 땅에 속한 인간 눈에는 ‘가려진’ 하늘 회의와 하나님과 사탄에게는 ‘드러난’ 땅의 무대에서 벌어진 “히브리 비극”으로 규정되곤 한다.<sup>25</sup> 비극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재한 공포를 대면시키지만, 소름 끼치는 맹목적 필연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 비극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sup>26</sup> 미학의 관점에서 도 욱기는 고통 일체를 제거하지 않는 성서 속 ‘비극’이다. 서사와 시가 어우러진 비극 욱기에는 미묘한 신학적 여운과 심미적 긴장감이 흐른

24 욱기를 드라마 장르로 해석한 이들이 여럿 있으며, 문체나 언어학적인 층위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무지개(literary rainbow)”로 표현되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Agata Szepe, “The Book of Job as a Drama: Interpretation Possible”, *Roczniki Kulturoznawcze* 9, no. 3 (2018), 52-54를 보라.

25 Batnitzky and Pardes, “The Book of Job: Aesthetics, Ethics, and Hermeneutics,” 3.

26 크레이그 바돌로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욱기』 송동민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17), 63. 원제는 Craig G. Bartholomew, *When You Want to Shout at God: The Book of Job, The Bible for Everyone* (London: Hodder & Stoughton, 2014).

다. 이는 욱이 끔찍한 재앙에 무력하게 내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던 욱과 그렇지 않은 욱의 갈등이 매끄럽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매끄럽지 않음이 미학적 긴장감을 창조한다. 그 긴장감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내기’에 의해 의로운 욱이 끔찍한 재앙의 희생자가 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드라마 장르는 구성상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 핵심이듯 욱의 드라마도 변영과 재앙이 교차하면서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

욕기의 구성 자체는 단순하다. 매우 전통적인 신앙인 욱을 묘사한 이야기체(1-2장; 42:7-17)와 고분고분한 신앙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시문의 논쟁으로 구분된다. 겉보기에는 고통을 견디며 인내하는 욱에 대한 이야기체-시문-이야기체로 끝나는 단순한 구성이지만,<sup>27</sup> 시문에는 욱의 탄식과 저항, 욱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과 항변 등 복잡하고 애매한 논쟁적 대화로 출렁인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1:22),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은 욱이(2:10) 3장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부조화로 인해 독자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때 욱의 복잡한 내적 갈등과 회의적인 태도는 널리 유행하는 보은 논리의 전통적인 공통 신학 체계로 무장한 친구들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확신과 부딪히면서 통제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욕의 드라마에서 의인의 변영과 경건은 사탄이 놓은 덫이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의인 욱을 덮쳤기 때문이다. 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사탄에 의해 열 자녀와 재산을 삼시간에 모조리 잃는다. 사탄은 욱의 몸에 치명타를 입히기

27 욱기 구성 관련한 통일성 및 다양한 논점을 위해 Mark W. Bartusch,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Job: The Priority of Poetry the Primacy of Pros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6:3 (2019), 36-41; David W. Priddy, “The Aesthetic Integrity of the Book of Job”, *Review & Expositor* 114, no. 2 (2017), 183-189를 보라.

까지 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퍼진 종기와 극심한 가려움(1:1-2:7), 피부에 흐르는 진물, 심각한 부스럼, 통증을 수반하는 상처, 벗겨지고 검어진 피부(13:18-20; 30:30), 고름에 번식하는 구더기들까지(7:5) 알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은 처참했다. 도성 밖의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모습에서(2:8) 욱의 안락했던 삶과 품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잣더미와 깨진 항아리들이 나뉘는 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그의 삶은 산산이 깨졌다.

그런데 욱의 고통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의인 욱에게 비극을 안겨주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사탄에게 욱의 고통을 승인한 하나님은 욱의 무대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가 숨으셨다. 그의 숨으심은 욱의 항변과 질문을 거칠게 쏟아내는 논쟁 단락의 서막인 셈이다. 이후 욱의 친구들이 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고, 그들은 욱과 함께 침묵 속에서 7일의 시간을 보낸다(2:13). 그런데 이 완전한 침묵의 심연을 빠져나온 후 욱은 강력한 반발심과 불안감에 휩싸인 채 불확실성과 혼돈 속으로 침전한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욱을 두둔하며 하나님과 욱 사이의 각별한 신뢰 관계를 입증했지만(2:2-3), 이제 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며 위태로움 속에서 반항자가 된다. 조지 린드벡(George A. Linbeck)이 이상하고도 새로운 세계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서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다<sup>28</sup> 욱에게 새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다.

## 2) 부서짐과 저항의 심미성, 그리고 진실 말하기

욱은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다. 미학에서 “부서짐의 부정성은 미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부서짐의 부정성이 없으면 미는 왜소해져 매

28 손호현, 『악의 이유들: 기독교 신정론』 (서울: 동연, 2023), 72에서 재인용.

끄러움이 된다.<sup>29</sup> 욱의 내면에서 분출하는 불평과 저항 언어가 산산이 부서진 욱의 가시성이다. 로버트 알터(Robert Alter)의 말대로 3장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sup>30</sup> 불행의 부정성 앞에서 욱은 진실하다. 미학의 차원에서 욱은 친구들에게 없는 독특성이 있다. 첫째, 욱은 ‘미적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바움가르텐에 따르면, 미적 열정은 아름답게 흥분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신이자 내적 열망이다.<sup>31</sup> 그는 미적 열정을 그동안 우리가 망각한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sup>32</sup> 그렇다면 3장은 욱의 미적 열정을 열어젖히는 문이다. 욱은 저항과 질문과 항변이라는 낯선 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그의 친구들은 욱의 언어에 충격받는다. 욱의 낯선 언어는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의 영향을 도외시킬 수 없겠지만(2:9), 고통과 함께 단단한 껍질이 벗겨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는 고뇌에 기인한다. 욱은 하나님의 칭찬과 신뢰를 무효화하고(1:8; 2:3) 이야기 화자의 평가를(1:22; 2:10) 조롱하듯 죽음을 갈망하며 불평과 불안에 휩싸인다. 욱은 고통의 이유를 묻고 내적 갈등에 시달리며 재앙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침묵이 아닌 말하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욱의 말은 그의 친구들이 거부하는 세계다.

둘째, 욱은 7일간의 침묵을 끝낸 후 ‘말하기’로 진실의 덮개를 들춘다. 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경악했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고분고분한 순응의 언어가 아닌 저항의 언어를 선택한다. 그는 출생의 기쁨이 아니라 어머니가 출산하던 날까지 저주하며 그날이 암흑의 날이 되지 않은 것을 탄식한다(3:1-10).

29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69.

30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96.

31 바움가르텐, 『미학』, 72.

32 윗글, 74.

욥은 탄식과 불평의 언어를 기탄없이 쏟아내며 기존 신앙 공식에 마찰을 일으키고 원활한 소통을 뚫개는 낯선 언어를 창조해 간다. 그런 그의 언어는 반항적이지만, 시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은유로 직조된 탁월한 감수성을 자아낸다.

욥은 대담하게 근원적 절망감을 드러낸다. ‘암흑이 있으라’(אֲחֵךְ יְהוָה / 예히 호세호, 3:4)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이것은 ‘빛이 있으라’(יְהוָה אֹרֶךְ / 예히 오르, 창1:3)는 하나님 창조 명령을 뒤엎기라도 할 듯하다. 그렇게 “욥의 세계는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 빠져 버렸으며, 이제 그는 창조 세계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애쓴다.”<sup>33</sup> 이는 태초의 시간을 끌어들이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깊은 절망감의 표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서야 그는 이 혼돈의 상황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깊어지는 탄식 속에서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는지 반문한다(3:20). 더군다나 욥은 그의 길이 ‘숨겨진’ 사람(אֲשֶׁר־יְהוָה נִסְתָּרָה לְבָבִי / 게베르 아쉐르-다르코 니쓰타라) 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막으셨다’(אֱלֹהִים בָּעָרָה בְּיָסָר / 바야쎬호 엘로야호 바야도)라고 말함으로써(3:23) 철저한 고립과 괴로움의 원인자로 하나님을 지목한다. 길이 하나님에 의해 ‘숨겨지고’(수동) 하나님이 ‘막는다’(능동)는 동사 병렬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차단과 감금의 긴장감을 전달한다. 흥미롭게도 사탄이 이와 동일 계열 동사를 사용하여 욥의 안전과 보호를 말했지만(1:10),<sup>34</sup> 욥은 보호가 아닌 출구 없는 하나님의 차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욥의 신정론적 절망감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33 바돌로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기』, 80에서 재인용.

34 1장의 사탄의 말과 3장의 욥의 말이 동일 계열 동사를 사용하여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의도된 구성이 흥미롭다. ‘올타리를 치다’ 또는 ‘차단하다’를 뜻하는 동사 חָצַק(쑤크, 1:10)와 ‘고립되다’, ‘덮다’를 뜻하는 כָּסָה(싸카호, 3:23)가 사용되었다. 두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의미를 강화한다.

그러나 희망조차 사라진 듯한 삶을 폭로하는 절망감 호소와 ‘말하기’는 ‘견딜’의 중요한 요소다. 욕은 분하고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할 만큼(7:11, 15) 삶을 경멸한다. 욕은 자기 나날들이 ‘의미 없는 순간’일 뿐이니, 내버려 달라고 한다(7:16). 욕은 심지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는지, 아침마다 ‘당신은 나를 찾으셨고’, 순간마다 ‘당신은 나를 시험하셨다’라고 불평한다(7:17-18). 그는 하나님께 당신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이제는 왜 멸시하는지(10:8-9),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삼으시는지(13:23-24) 조목조목 따져 묻는다. 그러나 동시에 욕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는데(23:8-9), 이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 고백과 충돌하는 전면적인 반대 선언이다. 아침마다 찾아와 시험하셨다는 욕의 불평과 모순된다. 이 불일치의 고통도 욕의 진실이다. 이 비극의 순간을 견디고 절망하는 욕 자신이 진실이다.

### 3) 진실과 거짓의 혼돈, 그리고 폭로의 심미성

숨으신 하나님께 항의하는 욕의 언어는 보응 공식에 익숙한 친구들의 분노를 격발시킨다. 그가 당한 고통의 진실을 독자는 알지만, 욕과 친구들은 모른다. 욕은 그동안 볼 수 없었고, 알지 못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간다는 환상을 깨뜨리고, 신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 인간이 고통으로 온전해진다는 C. S. 루이스(C. S. Lewis)의 말처럼,<sup>35</sup> 욕의 언어는 보응 논리의 고정된 신학

1:10 הֲלֹא-אַתָּה שָׂכַתָּ בְּעָרֵי דָּם      당신이 그를 둘러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3:23 וַיִּסְדֵּךְ אֱלֹהִים בְּעָרֵי      하나님이 그를 둘러막으셨다.

35 C. 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이중태 옮김), (서울: 홍성사, 2001), 146. C. S. Lewis, *The Problem of Pain* (London: The Centenary Press, 1940).

의 매끄러움에 파열음을 내고 균열을 일으킨 세계다. 이 곁끄러움은 미학의 관점에서 조화롭고 매끄러운 것이 진실이 아니듯 윤리적 불편함과 긴장감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진실과 거짓의 층위가 뒤바뀐다. 욕의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전통 지혜를 내세웠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에게 삶의 진실과 진리란, ‘심은 대로 거두는’ 기계적이고 매끄러운 우주의 작동 원리다(4:7-8; 8:5-6; 11:13-15). 친구들은 우주의 보편적인 작동 원리의 냉혹한 보응 전통이 표준화된 신의 정의라는 생각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욕은 자신의 비참한 경험이 그 보편 원리와 일치하지 않아 괴롭다. 욕의 현실에서 친구들의 공식화된 신학은 고통의 복잡성을 제거해 버린 ‘매끄러운 거짓’으로 전락한다.

미학의 관점에서 클로уз업 기법으로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촬영한 매끄러운 신체 부위를 “포르노그래피적”이라고 말하는 한병철의 표현처럼<sup>36</sup> 매끄러움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윤리적 불편함과 곁끄러운 긴장감이 고통의 진실을 과감히 드러낸다. 욕의 언어는 전통 신학에 안주한 친구들의 허위를 헤집고, 의인에게 재앙이 닥칠 수 없다는 매끄러운 진리에 불을 지른 것이다. 교조적 질서를 깨뜨리는 욕의 폭로는 곁끄러움지만, 그 폭로의 순간에 거짓된 덮개가 벗겨지고 진실의 심미성은 빛난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처럼 저항과 폭로는 권위가 부여하는 은혜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출현한다.<sup>37</sup> 욕은 고통의

36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24-25.

37 허먼 멜빌, 『모비딕』(김석희 옮김), (서울: 작가정신, 2008)에서 멜빌은 등장인물 중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빌려 요나와 욕을 허위의 면전에서 진실을 설교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원제는 Herman Melville, *Moby-Dick; or, The Whale*, The Arion Press E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진실을 찾기 위해 침묵 아닌 말하기를 선택했지만, 옉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옉에게 공격받는다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을 변호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갇혔다. 반면 옉은 기존 공식의 틀을 깨고 끝까지 꺾끄러운 진실 말하기에 자신을 내던진다. 한병철의 지적처럼 꺾끄러움과 대비되는 매끄러움의 세계는 어떤 고통도 상처도 책임도 없다. 특히 매끄러움을 추구하는 종교는 소비 종교에 불과하여 부정성 일체를 제거한다.<sup>38</sup> 그가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을 저항하지 않고 매끄러운 디지털 장치 속에서 “좋아요”만 추구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듯,<sup>39</sup> 미학의 관점에서 옉의 꺾끄러운 진실 말하기는 가공된 매끄러운 신학에만 ‘좋아요’를 누르는 신앙에 일격을 가하는 미적 투쟁이다.

하나님이 사탄의 무엄한 내기를 허용했듯, 옉도 무슨 말이든 말할 자유가 있다. 인간은 말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기에 말을 거느릴 줄 아는 인간의 아름다운 자각과 긍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옉의 불평과 저항의 언어를 제재하지 않았고, 옉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옉을 의식한 것일까. 그의 작품, 『파우스트』의 전체 핵심을 담은 개요 부분, “천상 서곡”에서 파우스트를 ‘나의 중’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말로 파우스트의 혼란과 섬김을 변호하듯,<sup>40</sup> 옉의 혼란은 옉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속에 이미 승인된 것이다. 옉은 사방이 가로막힌 철저한 은닉의 경험을 토로함으로써,

38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17.

39 한병철, 윗글, 9-10.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일상을 매끄럽게 가시화하는 것은 내면의 공허를 드러내는 것이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만족감일 뿐이라는 지적은 매우 적실성 있다.

4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전영애 옮김), (서울: 길, 2023), 89-91. 메피스토텔레스는 극 중에서 파우스트에게 “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그제 제 고유한 본질”, “빛을 낳았던 암흑의 일부”라고 소개한다(201쪽). 원저는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Texte*, herausgegeben von Albrecht Schöne,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Frankfurter Ausgabe, Bd. 7/1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1994).

욥은 통속 신학이 당연시하던 신의 가시성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뼈아픈 부재의 고백은, 친구들의 매끄러운 신학에 균열을 내는 결끄러운 진실 폭로다.

오늘도 나의 말은 반역이고,  
나의 손은 나의 신음 위에서 무겁다.  
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찾아낼 텐데,  
그의 자리까지 내가 갈 텐데(23:2-3)  
보라, 내가 앞으로 가 봐도 그가 없고,  
뒤로 가봐도 그를 알아차릴 수 없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가 오른쪽으로 몸을 숨기시면 그를 볼 수 없다(23:8-9, 사역).

욥은 현존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숨으신 하나님을 폭로했다. 폭로는 드라마나 문학에서 극적 긴장을 창조하고, 법정에서는 진실과 판결을 뒤집는 핵심 요소다. 욥이 이스라엘의 핵심 증언에 균열을 가하는 반대 증언자가 된 것이다. 욥이 의인의 고통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향해 “안돼!”를 외친 것이다. 그렇게 욥은 이해 불가한 고통 속에서 맹렬한 반항 정신으로 죄 없이 고난받으며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 상징체가 되었다.

그러나 욥의 결끄럽고 낯선 언어가 불어 넣는 긴장감은 그의 친구들에게 불편한 반항일 뿐이고, 매끄러운 진리가 될 수 없다. 반면에 질문, 항변, 불평, 폭로를 불사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쏟아낸 많은 말들은 기계적 인과율의 폐쇄된 논리 회로 속에 갇힌 무한 반복일 뿐이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공허한’(קִרְוָה/루아흐) 말들이 끝이 있겠는가(16:2-3; 21:34) 반문한다. 그에게 친구들이 내세운 통속 신학의 교리들은 생명력을 잃고 다 타버린

www.kci.go.kr

‘재 같은 속담’일 뿐이다(13:12). 그러니 친구들의 같은 말 다른 표현의 반복은 “채굴 끝난 광산이요, 제 꼬리를 문 뱀처럼 한자리를 맴돌고 있음”<sup>41</sup>이다. 이에 해석학 측면에서 친구들의 경직된 교리와 욕의 고통의 현실이 충돌할 때, 공통 신학과 절대자의 위계에 눌리지 않는 욕의 진실 말하기는 심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긍정’이 아닌 ‘부정’의 신학과 맞닿는다. 나아가 한병철의 말처럼, 신에 대한 사랑은 “아픔과 불행의 절대적 부정성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고 부정성이 없으면 신을 향한 상승도 없다.<sup>42</sup> 미학에서 매끄러움의 긍정성은 가공하는 기술이고 상품이 지 예술이 아니듯<sup>43</sup> 숨으신 하나님의 부정성은 하나님의 대면을 유예함으로써 예술적 긴장감을 높이고, 드러냄의 긍정성(38-41장) 사이에서 깊은 대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것은 신학적 정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욕의 말하기에 침묵하며 숨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 4. 하나님의 침묵에서 발화한 ‘은닉’의 미학

### 1) 의도된 침묵의 레토릭

욕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신이다. 인간의 고통과 비애 앞에서 신의 침묵은 가장 무시무시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41 구스마보 구띠에레스, 『욕에 관하여: 하느님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 (김수복, 성찬성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6), 86. Gustavo Gutiérrez, *On Job: God-Talk and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translated by Matthew J. O’Connell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42 한병철, 『신에 관하여: 시몬 베유와의 대화』 (전대호 옮김), (서울: 김영사, 2025), 122-23. 원제는 Byung-Chul Han, *Über Gott: Ein Gespräch mit Simone Weil* (Berlin: Matthes & Seitz, 2024).

43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9-23.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욕의 신뢰 관계에 위태로운 긴장감을 조성한다. 아데나 피터스(Adena Peters)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현실”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 개념은 낯선 것이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강조했다.<sup>44</sup> 그러나 데이빗 클라인스(David Clines)는 욕과 그 친구들의 대화, 하나님 등장 이전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욕의 이해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욕의 신앙과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다.<sup>45</sup> 탐 밀라초(G. Tom Millazzo)도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항의와 하나님의 침묵을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주제로 보았다.<sup>46</sup> 즉 전능하고 위엄이 넘치며 지엄하고 영원한 위엄의 지배자가 침묵을 택하신 것을 일종의 신앙적인 전통 중 하나로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침묵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침묵은 다양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한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존재이자 실체를 드러내는 능력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무엇의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 무엇”이다.<sup>47</sup> 즉 침묵은 하나님의 ‘레토릭’이다.

44 Adena Peters, “When God is Silent,” *Shabbat Shalom* 21 (1992): 21-23.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번쩍이는 빛과 뻑뻑한 구름과 거대한 소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출 19:16),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로 나타나신다(왕상 19:12). 곧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나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 해석된다.

45 David J. A. Clines, “The Silence of God in the Book of Job”, David J. A. Clines, David M. Gunn, and Alan J. Hauser (ed.), *Art and Meaning: Rhetoric in Biblical Literature* (Sheffield: JSOT Press, 1982), 196-214. 클라인스는 욕기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욕의 고난과 신앙적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46 G. Tom Milazzo, *The Protest and the Silence: Suffering, Death and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에서 저항과 침묵 사이의 관계를 다뤘다. 이 책이 다소 편파적이고 피상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학문적인 분석을 내놨다는 높은 평가도 받았다.

47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7.

막스 피카르트(Max Picard)는 마르틴 하이데커(Martin Heidegger)의 철학에 기초해서 침묵의 가치, 그것의 존재론적인 성격과 깊이, 침묵의 초시간적인 성격과 신앙의 신비를 논하면서 “말이 끝나는 곳에서 침묵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침묵은 단지 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현상이고 완전한 세계인 것이다.<sup>48</sup> 또한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sup>49</sup>라는 점에서 침묵은 다른 형태의 언어 행위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와 읊의 언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상호텍스트성”<sup>50</sup>의 세계 안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말하기의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소통을 견인하는 ‘경청’ 행위다. 대화에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듯 하나님의 침묵은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읊의 내면에서 분출하는 혼돈과 격정의 언어를 추동하는 요인이기도 했지만, 그의 침묵은 읊의 친구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였다. 즉 말을 멈추고 듣는 책임의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이다. 이때 침묵은 읊과 친구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창이고, 읊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숭고한 예술이 된다. 따라서 미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뒤흔들고, 파헤치고, 의문을 제기하고, 삶을 바꾸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무언가”를 알라는<sup>51</sup> 담금질이다.

48 윗글, 17-18.

49 이 말은 성 마리아 쿨름 사원 제단에 새겨진 글이며, 괴테의 일기에 기록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50 ‘상호텍스트성’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지만,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제기한 본문의 대화적 성격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 맥켄지, 스티븐 헤인즈 엠크,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유연희 외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개정증보판), 235-272를 참고하라.

51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17.

## 2) 은닉성과 하나님의 아우라

“침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어다. 그 외의 것은 어설픈 번역이다.” 라는 말처럼<sup>52</sup> 하나님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역설적이지만, 말 없는 소통이다.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신을 따라야 한다”<sup>53</sup>는 경구 역시 깨달음과 침묵의 관계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침묵이 숭고미를 드러내는 신비의 ‘아우라’임을 시사한다. 자칫 이러한 침묵 예찬이 신의 침묵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학과 미학의 관점에서 침묵은 부재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증폭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 20세기 초 개신교 신학계에 영향을 끼친 칼 바르트(Karl Barth)는 숨김과 드러냄의 동시성을 언급하며 ‘은닉’을 에로틱의 본질이자 유혹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 유혹은 거리 두기의 파토스로서 “은닉의 파토스”를 형성하며,<sup>54</sup> 역설적으로 이것은 욕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탐구를 추동하는 비가시적 존재의 역동성이 된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기독교 신학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부터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에 이르기까지 오래되고 중요한 화두였다.<sup>55</sup> 이 전통에 따르면 선에 대한 모든 긍정은 모순과 고통이라는

52 토마스 키딩, 『침묵의 대화』 (엄무광 옮김), (서울: 카톨릭출판사, 2021, 개정 초판), 155. 저자의 이 말은 일종의 미학적 환기(Aesthetic Evocation)다. 원제는 Thomas Keating, *Intimacy with God: An Introduction to Centering Prayer* (New York: Crossroad, 1994).

53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침묵의 서』 (성귀수 옮김), (서울: 아르테, 2016), 22. 원제는 Joseph Antoine Toussaint Dinouart, *L'art de se taire: principalement en matière de religion* (Paris: Despilly, 1771).

54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51-52.

55 루터가 ‘하나님의 숨으심’(The Hiddenness of God)을 말하며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숨어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함으로써 은밀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병훈, “루터의 하나님: 루터의 ‘숨어계신 하나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 『한국개혁신학』 51 (2016), 8-56을 참고하라.

부정 아래 숨어 있다. 즉, 유한한 언어로는 하나님을 쉽게 규정할 수 없고, 모든 긍정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소유하거나 도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닉된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부정을 통해 규정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알려지지 않은 저편에 존재하는 분이다.<sup>56</sup> 이러한 은닉의 부정성 이해는 하나님의 가시성에 대한 지나친 열광과 흥분으로부터 물러남을 뜻한다. 미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 부정성은 익숙한 공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아름다움의 정수로서 숭고미를 창조하는 예술적 역동성인 것이다.

## 5. 읍기의 미학적 긴장과 신학적 함의

### 1) 저항과 꺾끄러움의 신학

읍은 하나님의 침묵과 숨으심에 저항과 분열의 언어로 대응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가시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확신에 찬 언어로 읍을 비난하면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읍은 불평, 두려움, 슬픔, 저항, 경악 속에서 집요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지향했다. 읍의 친구들은 기존 체계에 매몰되어 ‘다른’ 무엇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기도 않고, 인과율의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보은 질서로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옹호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호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과 숨으심의 비가시성과 그 부정성이 창조하는 다름을 상상하지 못했다.

---

56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의 비가시성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 증언으로 논하고, 하나님의 숨어계신 놀라운 통치 질서의 심미적 차원과 야웨의 부정성을 이스라엘의 반대 증언으로 보고 신앙의 지평에서 제거되지 않는 긴장 관계로 다뤘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이를 “하나님의 일식”(Eclipse of God)으로 표현했지만, 숨으신 하나님은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희망의 언어였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진실을 다루는 예술 영역에서 부정성을 삭제하면 매끄러운 껍데기만 남는다. 부정성을 제거하면 오로지 매끄러움의 긍정성만 강조하게 되고, 낯선 것의 부정성이 일절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상품으로 전락할 뿐이다.<sup>57</sup> 따라서 옴의 저항과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은닉의 부정성은 새로운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적나라하게 모조리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가시성을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없다. 그 어떤 신비와 오묘함의 예술성을 맞볼 수 없는 “포르노그래피적인”<sup>58</sup> 신학만 남는다. 그러므로 옴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 사이의 긴장은 미와 추함, 평온함과 불안함 등 감정에 대한 예술을 끌어안은 또 다른 신학적 경험의 무대가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비가시성은 공식화된 신학의 경계를 허물고 미학적 긴장을 통해 새로운 진리 경험으로 이끈다.

그 긴장감 핵심에는 옴의 저항이 있고, 그의 언어는 교과서적이고 지배적인 신학을 향해 덤벼드는 도전이었다. 옴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 것부터 세상이 악인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까지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과 괴로움을 토로했다(9:19-24). 그는 또 왜 당신이 “나와 다투시는지를”(עַל מַה־תִּרְיֹבֵנִי/알 마-테리베니)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הוֹדִיעֵנִי/호디에니, 10:2)라고 호소도 한다.<sup>59</sup> 이때 옴은 법정 다툼을 암시하는 동사 ‘리브’(רִיב/다투다, 소송하다, 논쟁하다)를 사용한다. 이것

57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24.

58 한병철이 에로틱함의 종말로서 영화의 클로즈업 기법으로 촬영된 매끄러운 얼굴이나 몸은 언어를 잃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용했다.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24.

59 10장 2절 시행을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תִּרְשָׁעֵנִי-עַל אֲמַר אֵל-אֱלֹהִים אֵל, 왜 나와 다투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עַל מַה־תִּרְיֹבֵנִי)이다. 이때, 둘째 소절에서 ‘다투다’(리브) 동사는 주로 법정 용어로 쓰이는 동사로서 법정 다툼, 즉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문 용어로서 모두 9회 사용되는데, 옴이 다섯 번(9:3; 10:2; 13:9; 23:6; 31:13), 친구들이 두 번(13:8; 33:13),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한 번 사용된다(40:2).

은 단순한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법정 투쟁의 언어다. 욥이 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간 법정에 회부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면(9:32),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기소 이유를, 즉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항복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욥은 거룩한 분 앞에서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물고 간다. 즉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 부재,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옹호하며 관습화된 언어로 무장한 친구들의 통속 신학의 무능을 폭로하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보응 논리에 기초한 신정론을 해체한다. 그렇게 욥은 기존 체계를 전복하는 탄식과 저항 전승의 흐름을 잇는다. 이때 욥의 저항이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욥은 친구들의 닳아빠진 전통 교리와 통속 신학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기대하며 대담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린다(19:25-27; 31:35-36).

## 2)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과 신비

욥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독자는 알 수 없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폭풍'<sup>60</sup>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셨고 말씀하셨다(38:1). 욥기 38-41장은 하나님의 침묵 끝에 폭풍으로 압도하는 존재의 표시이자 응답이며, 욥기 전체의 절정이다. 욥기의 절정인 '신현' 단락은(38:1-42:6)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수사적 질문들이 본문 전체를 점유하다시피 한다. 폭풍 속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 이해

60 폭풍(הַרְעָמָה/하쓰아라) 곧 휘몰아치는 바람은 소용돌이치는 바람이다. 매우 희귀한 단어다. 이것은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욥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안근조는 이 바람을 욥을 깨우치는 견책의 바람이며, 창조 세계의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바람”으로 해설했다.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183.

너머에 존재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한 자연 세계와 거대한 바다 생물, 리워야단 같은 신화적 동물이 공존하는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하틀리는 야웨의 말씀이 다양한 장르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고대 근동 텍스트의 논쟁적 수사 의문문이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sup>61</sup>

하나님의 현현은 그 자체로 신의 아우라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우주 계획을 펼쳐 보인다.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주 기획안”(Universe Project)<sup>62</sup> 이자 설계이고, 시편을 제외하고 성서의 어떤 책보다도 우주와 하나님 역할을 광범위하게 논한다.<sup>63</sup>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증하신 신학이며, 아마도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께 귀속된 순수한 신학으로서 가장 긴 연설일 것이다.<sup>64</sup>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우주 탄생의 장엄함을 질문으로 압도한다(38:4-15).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38:4) 우주 탄생의 태곳적 시간, 영원, 미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야생동물(산양들, 들나귀들, 들소들, 타조들, 말들, 매와 독수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봄까지(38:39-39:30) 야생의

61 하틀리는 여호와와 말씀을 다양한 장르의 혼합된 구성으로 본다. 송영, 논쟁, 피고측 신문, 원시 괴물들과 벌이는 신들의 전쟁 신화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학적인 질문 형식이 다른 구약 본문들의 충영에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논쟁 형식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야웨의 스피치와 매우 유사함을 밝혔다(Hartely, *The Book of Job*, 488).

62 Clines, *Job 38-42*, 1096.

63 Jozef Jančovič, “Does God Micromanage the World? Learning about the Cosmos from the Book of Job”, *Human Affairs* 33 (2023), 158-171. 이 논문은 우주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분석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를 정의하고, 욥기가 세계의 통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욥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우주의 운행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한다. 말하자면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우주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위치를 조명한다.

64 Jančovič, “Does God Micromanage the World? Learning about the Cosmos from the Book of Job”, 164.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옴을 쏟아지는 질문들을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서로 싸우는 힘들 사이에 거대한 힘의 공포와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하나님은 다소 과장된 시적 표현으로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성을 지닌 거대한 바다 생물들, 즉 인간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신화적인 동물 베헤못(40:15-24), 혼돈 세력을 대표하는 리위야단 외모와 행동까지<sup>65</sup> 하나님의 질문과 묘사는 현란하다(41:1-32; 참조. 시 74:14; 사 27:1). 그러면 폭풍 속에서 옴을 압도했을 폭풍 같은 질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 3) 하나님의 질문과 옴의 침묵

하나님이 드디어 옴에게 응답하셨지만, 그 방식은 질문이다. 이는 아마도 폭발적으로 끓어올랐던 옴의 저항과 탄식의 언어를 하나님이 의식한 수사로 보인다. “지식 없는 말로 ‘계획’(מַחְשָׁבָה/에차)을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38:2) 이 질문에 하경택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sup>66</sup> 자체를 강조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옴의 침묵이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끝났을 때, 옴은 침묵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고 재촉하신다(38:3; 40:2-3). 이후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지점마다 옴의 짧은 응답이 뒤따르지만(40:3-5; 42:1-6), 이는 오히려 ‘말하는’ 옴과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위치가 뒤바뀌는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나님은 옴에게 대답을 재촉하시나(38:3) 옴의 응답은 지연된다. 마침내 옴이 더

65 바닷속 거대 생물을 다룬 상세 연구는 이정학, “구약성서의 전통적 거대동물 모티프를 통한 인간 이해: 옴기 40, 41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6 (2025), 231-241을 보라.

66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옴기 연구』, 230.

는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자(40:5), 하나님은 이에 자극받으신 듯 앞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다(38:3; 40:7).

38:1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 폭풍 가운데로부터,  
그리고 말씀하셨다.

**38:3** 너는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내가 알게 하라.

40:1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40:2 흠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려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40:3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40:5 한번 내가 말했으니 나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했으나), 나는 더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40:6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응답하셨다. 폭풍 가운데로부터,  
그리고 말씀하셨다.

**40:7** 이제 너는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내가 알게 하라.

42:1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욥이 하나님의 침묵을 맞받아 침묵을 재연하려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말을 맞받아 법정 용어로 해명을 요구했던 욥을 상기시키려는 듯(10:2) 전능자와 “다투려느냐”(하로브/הָרֹב, 40:2), 내가 네게 질문하겠으니 “내가 알게 하라”(הוֹדִיעֵנִי/호디에니, 38:3; 40:7)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왜 나와 다투시는지”(מַה-תִּרְיֹבֵנִי/마-테리베니)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הוֹדִיעֵנִי/호디에니, 10:2)라는 투쟁적 호소를 맞받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이 욥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때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더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한다(40:5). 이러한 욥의 행동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www.kci.go.kr

이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고, 자기 지혜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타자성’을 침묵으로 표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저항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는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40:8). 이것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자, 욥에게 송곳 같은 질문이다.

#### 4) 경이로움에 의한 미적 교정과 진실

하나님 질문에 입을 가리고 침묵했던 욥이(40:3, 5) 거대한 바다 생물, 베혜못과 리위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와 질문들까지(40:15-41:34) 듣고 최후 발언을 한다. 욥의 최후 발언은(42:2-6) 트로이 마틴(Troy W. Martin)의 지적처럼, 해석자들에게 욥기 전체 구조를 완성하는 결론으로 이해되었다.<sup>67</sup> “내가 압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어떤 계획도 철회될 수 없음을(42:2)”.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 앞에서 침묵하던 욥의 첫 마디는 ‘내가 압니다’이다(9:2, 28; 10:13, 18; 19:25; 21:27; 30:23 참조). 욥이 하나님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고, 하나님도 욥에게 ‘내가 알게 하라’고 두 번 말씀했지만(38:3; 40:7), 알아야 할 사람은 욥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결국 행복하고 만다. 그는 자기를 경멸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기 부정의 시간을 맞이한다.

욥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다. 하나님은 우주 탄생과 동식물의 세계를 질문하시면서 인간의 윤리적 잣대와 정의에 의해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가 규정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 즉 세계의 균형 잡힌 질서들, 다양한 리

67 이와 관련된 논의는 Troy W. Martin, “Concluding the Book of Job and YHWH: Reading Job from the End to the Beginning”, *JBL* 137 (2018): 299-318을 보라.

듬과 역설들, 인간 이해 밖에 있는 신비로운 자연 세계, 자유와 한계들, 기괴함과 아름다움의 뒤섞임,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공존하는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 하나님이 욱과 친구들 말에 끼어들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응답하신 질문의 핵심은 인간 한계에 대한 실존적 대면과 기존 지식의 안정성을 뒤흔고 침입하는 경이로움이다.

무엇보다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오간 욱의 말, ‘내가 회개합니다’(תשובה)/뵤니합티, 42:6)는<sup>68</sup> 자기 부정과 각성을 표현한 핵심이다. 저항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고뇌하는 인간의 겸허함이다. 욱의 회개는 우주 주권자의 위계적인 압력에 의한 것도, 친구들이 밀어붙인 고정된 신학 체계 같은 장황한 말도 아니다. 래리모어의 말처럼, 욱이 티끌과 잿더미에서 뉘우친 것은, 무력한 좌절이나 우월한 힘에 대한 굴종도 아니다.<sup>69</sup> 그의 회개는 전통적 지혜와 지식을 해체하는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과 질문이 빚어낸 변화이고, 경이로움과 경악으로 점철된 신비한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교정이다.

아름다움에 의한 교정은, 인간의 제한된 윤리적 잣대와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재단하려 했던 ‘인간 중심적 신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욱은, 세상만사가 인과율로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친구들의 통속 신학의 허위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조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서야 저항의 언어를 철회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폭풍 속에서 통제 불가능한 기괴함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거대

68 욱기 42장 6절을 다룬 주요 해석에 대한 세부 설명은 김준,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욱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5 (2025), 19-50을 보라. 김준은 챗GPT를 활용하여 이 구절을 욱의 발언이 아닌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한 새로운 견해를 소개한다. 그러나 본 논고는 이 구절을 욱의 발화로 읽는 주류 입장이다.

69 래리모어, 『욱기와 만나다』, 208.

한 우주 질서를 인식했다. 즉 욥은 인간의 도덕적 규범으로는 온전히 해명할 수 없는 하나님 통치의 복잡성과 신비를 질문 속에서 깨닫고, 자신의 세계 이해와 하나님 이해를 전면적으로 교정한 것이다. 따라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 종결자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사는 하나님의 종 욥이다”<sup>70</sup>.

독자들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공포의 동시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통속 신학의 ‘공식 대본’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던 욥의 ‘저항’과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이뤄지는 ‘미적 교정’의 역동성을 본다. 욥은 인과율의 체계에 갇힌 맹목성이 아니라 저항 언어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자신을 은폐함으로써 경청하는 하나님을 가시화했고, 이 둘의 결합으로 하나님과 욥의 진실은 드러났다. 반면에 자기충족적이고 기계적인 보상 신앙과 통속 신학으로 하나님을 옹호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해 나에게 대해 나의 종 욥처럼 너희가 ‘올바르게’(נְכוֹנָה/נְכוּנָה)<sup>71</sup>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42:8). 완벽한 반전이다. 이것이 산산이 부서졌던 욥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은폐되었던 진실이다.

70 윗글, 108.

71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42:7, 개역개정)라는 말에서 ‘옳지 못하다’는 말은 윤리적 올바름을 뜻하지 않는다. 7절 마지막 동사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כִּי לֹא רַבֵּרְתֶּם אֵלַי נְכוֹנָה כְּעַבְדִּי נְכוֹנָה)가 된다. 부사처럼 번역했지만, ‘네코나’(נְכוֹנָה)는 ‘균’(כּוֹן) 동사의 단순 제귀 분사형으로서 형용사적 용법이다. 즉 확고히 서다, 견고히 서다, 바로 세워지다, 정립되다 등을 뜻한다.

## 6. 나가는 글

욥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미학적 읽기는 욥의 비극적 비전의 아름다움을 이성적 논리보다 정서적 측면과 감성적 자각 측면에서 인식하게 했다.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문학적 사고를 통해 공감의 깊이를, 예술적 사고를 통해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이 논의는 가짜를 진짜로,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가공하는 기술적인 매끄러움의 시대성에 놀리지 않고, 비극적 드라마로서 욥기의 서사적 리듬이 제공하는 욥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은닉의 미학에서 신학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욥의 비극은 죄와 벌의 균형이 깨진 것에서 시작되었다. 욥에게 불어닥친 재앙과 고통은 전통 신학의 보응 논리로 해명되지 않으니 그 권위는 해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모르지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했고, 그는 사탄이 말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감금 상태에 놓인 존재로 여겼다. 욥은 격렬한 고통에 휩싸이면서 희망과 현실의 괴리, 하늘과 땅의 괴리를 인식하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동안, 우주의 창조자이자 언어의 창조자 하나님은 침묵으로 자신을 은폐했다. 이에 욥은 숨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격렬하게 질문과 저항의 언어로 고통을 견디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변호를 자처하면서 욥의 낮설고 도전적인 언어를 하나님 공격이자 불신으로 간주하고 죄인 취급했다. 이에 욥은 방황하고 저항하면서도 진실 말하기와 하나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 사이에는 욥의 폭발하는 저항 의식과 하나님의 ‘비가시적’ 현존이 밀착되었고, 하나님의 침묵에 의한 은닉의 부정성은 욥이라는 한 인간 내면의 순도 높은 복잡성을 끄집어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욥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직접 밝

www.kci.go.kr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욥에게 폭풍처럼 쏟아내면서 우주 원리와 자연의 경이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욥을 압도했다. 욥은 왜 전능자가 나와 다투시려는지 알기를 바랐고 하나님은 같은 질문으로 욥에게 질문했다. 욥은 급기야 저항의 언어를 멈추고, 무지를 인정하는 자기 부정과 함께 새로운 삶의 세계로 진입하여 회개했다. 그의 뉘우침은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계획안'에 펼쳐진 경이롭고 기괴한 아름다움에 의한 '교정'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했던 욥의 친구들을 꾸짖고, 저항의 언어로 투쟁 의지를 보였던 욥의 올바름을 친구들 앞에서 승인하셨다(42:7-9).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욥이 보여준 비극적 비전은 인간의 고통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고통의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퇴치하려는 인간의 열망을 격파한다. 즉, 욥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 침묵의 은닉성, 그리고 그 곁끄러움을 통해 성서의 비극적 비전이 획득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예수가 당시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에게 불경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 것처럼, 욥의 드라마는 고통 없는 마취 상태를 바라는 그릇된 종교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과도한 종교적 바람을 뺀다. 이로써 욥의 비극은 그의 저항 언어와 하나님 침묵의 비가시성이 무엇을 조준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침묵의 신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사색의 장을 펼쳐낸다.

## 참고문헌

- 구스타보 구띠에레스, 『욥에 관하여: 하느님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 (김수복·성찬성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원제 Gutiérrez, Gustavo. *On Job: God-Talk and the Suffering of the Innocent*. Translated by Matthew J. O'Connell,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 김순영, “욥기의 심미성과 탈신정론적 해석: <쌌고로드의 재판>과의 상호본문성을 중심으로”, 『주안신학논단』 (2025), 133-168.
- 김준,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5 (2025), 19-50.
- 김진혁, “신학과 예술의 만남: 아름다움, 경이, 상상력을 통한 다리 놓기”, 예술목회연구원 엮음, 『예술신학 톨아 보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7).
-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신국원 옮김), (서울: IVP, 2010). 원제 Wolterstorff, Nicholas.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 (Grand Rapids: Eerdmans, 1980).
- 리처드 B. 헤이스·엘렌 F. 데이비스 엮음,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 (박규태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21). 원제 Hays, Richard B., and Ellen F. Davis, eds.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3).
- 마크 래리모어, 『욥기와 만나다』 (강성윤 옮김), (서울: 비아, 2021). 원제 Larrimore, Mark. *The Book of Job: A 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최승자 옮김), (서울: 까치, 2017). 원제 Picard, Max. *Die Welt des Schweigens*. Zürich: Eugen Rentsch Verlag, 1948.
- 손호현, 『악의 이유들: 기독교 신정론』 (서울: 동연, 2023).
- 스티븐 헤인즈·스티븐 매켄지 엮음,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유연희 외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원, 2022, 개정증보판). 원제 McKenzie, Steven L. and Haynes, Stephen R.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rev. and exp.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 『미학』 (김동훈 옮김), (미학 원전 시리즈 1; 서울: 마티, 2019). 원제 Baumgarten, Alexander Gottlieb. *Aesthetica*. Frankfurt (Oder): 1750/1758.
- 앤서니 티셀턴, 『성경해석학 개론』 (김동규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원제 Thiselton, Anthony C.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전영애 옮김), (서울: 길, 2023). 원제 Goethe, Johann Wolfgang von. *Faust: Texte*. Herausgegeben von Albrecht Schöne.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Frankfurter Ausgabe, Bd. 7/1. Frankfurt am Main: Deutscher Klassiker Verlag, 1994.
- 우병훈, “루터의 하나님: 루터의 ‘숨어계신 하나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 『한국 개혁신학』 51 (2016), 8-56.

-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증언, 쟁론, 옹호』 (류호준·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03). 원제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이정학, “구약성서의 전통적 거대동물 모티프를 통한 인간 이해: 욕기 40, 41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6 (2025), 222-255.
- 제임스 C. 스콧,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숨겨진 대본의 일상정치학』 (김덕영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3). 원제 Scott, James C.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침묵의 서』 (성귀수 옮김), (서울: 아르테, 2016). 원제 Dinouart, Joseph Antoine Toussaint. *L'Art de se taire*. Paris: 1771.
- 카이 함머마이스터, 『독일 미학 전통: 바움가르텐부터 아도르노까지』 (신혜경 옮김), (서울: 이학사, 2023). 원제 Hammermeister, Kai. *The German Aesthe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토마스 키딩, 『침묵의 대화』 (엄무광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1, 개정초판). 원제 Keating, Thomas. *Open Mind, Open Heart*. New York: Continuum, 1986.
- 하경택, “욕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 (2015): 264-298.
- 한병철, 『신에 관하여: 시몬 베유의 대화』 (전대호 옮김), (서울: 김영사, 2025). 원제 Han Byung-Chul. *Sprechen über Gott: Ein Dialog mit Simone Weil* (Berlin: Matthes & Seitz Berlin, 2025).
- \_\_\_\_\_,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3). 원제 Han Byung-Chul. *Über Gott und die Welt: Gespräch mit Simone Weil* (Berlin: Matthes & Seitz, 2023).
- C. 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이종태 옮김), (서울: 홍성사, 2001). 원제 Lewis, C. 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HarperOne, 1940).
- Allender, Dan B., and Longman III, Tremper, *The Cry of the Soul: How Our Emotions Reveal Our Deepest Questions About God*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4).
- Bartusch, Mark W.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Job: The Priority of Poetry, the Primacy of Pros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6, no. 3 (2019), 36-41.
- Batnitzky, Leora. “The Book of Job and the Idea of Justice”, edited by Leora Batnitzky and Ilana Pardes, *The Book of Job: Aesthetics, Ethics, Hermeneutics* (Berlin: De Gruyter, 2015).
- Blumenthal, David R. *Facing the Abusing God: A Theology of Protes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Clines, David J. A. "The Silence of God in the Book of Job", edited by David J. A. Clines, David M. Gunn, and Alan J. Hauser In *Art and Meaning: Rhetoric in Biblical Literature* (Sheffield: JSOT Press, 1982).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Jančovič, Jozef. "Does God Micromanage the World? Learning about the Cosmos from the Book of Job", *Human Affairs* 33, no. 2 (2023), 158-171.
- Martin, Troy W. "Concluding the Book of Job and YHWH: Reading Job from the End to the Beginn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 no. 2 (2018), 299-318.
- McAteer, John. "Silencing Theodicy with Enthusiasm: Aesthetic Experience as a Response to the Problem of Evil in Shaftesbury, Annie Dillard, and the Book of Job", *The Heythrop Journal* 57, no. 5 (2016), 788-799.
- Milazzo, G. Tom. *The Protest and the Silence: Suffering, Death, and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Newsom, Carol A. "Job and His Friends: A Conflict of Moral Imaginations", edited by Carol A. Newsom, Kelly J. Murphy, and Brennan W. Breed, *The Book of Job in Context: Moral Imaginations in an Age of Turmo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Olojede, Funlola O. "Resilience and Resistance in the Book of Job: An African Socio-economic Hermeneutical Reading", edited by Chris A. M. Hermans and Kobus Schoeman, *Resilient Religion: Resilience and Heartbreaking Adversity* (Berlin: LIT Verlag, 2023).
- Ortlund, Eric. "Exegetical Difficulty and the Question of Theodicy in the Book of Job", *Journal for the Evangelical Study of the Old Testament* 7, no. 2 (2021), 90-112.
- Peters, Adena. "When God is Silent", *Shabbat Shalom* 21 (1992), 21-23.
- Priddy, David W. "The Aesthetic Integrity of the Book of Job", *Review & Expositor* 114, no. 2 (2017), 183-189.
- Swanepoel, Cornelius, and Johannes N. Vorster. "Taking God to Court: Job's Deconstruction and Resistance of Dominant Id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and Theology* 84, no. 3-4 (2023), 1-18.
- Szepe, Agata. "The Book of Job as a Drama: Interpretation Possible", *Roczniki Kulturoznawcze* 9, no. 3 (2018), 51-66.

검색어

욥기, 은닉의 미학, 하나님의 침묵, 저항 언어, 부정성, 숨김과 드러냄, 파토스, 예술, 철학, 아름다움

[ ABSTRACT ]

## The Aesthetic of Hiddenness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Revealed in Job's Language of Resistance and God's Silence

Soon-Young Kim  
ACTS University

This study is an integration of biblical theology and modern aesthetics, examining the aesthetic tension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between Job's language of resistance and God's silence. Pointing out that attempts to unilaterally explain and dogmatize suffering can become an oppressive measure against the sufferer, this paper reads the Book of Job from a macroscopic, aesthetic perspective by utilizing philosopher Byung-Chul Han's concepts of 'the negativity of roughness' and the 'aesthetic of hiddenness.'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retributive logic defended by Job's friends as a 'smooth lie' and a form of consumer religion that eliminates the negativity of suffering. In contrast, it argues that Job's unfamiliar language of resistance possesses an 'aesthetic of roughness' that shatters the falsehoods of conventional theology and reveals the truth. Amid this conflict, God's silence acts not as the absence of the divine, but as an active rhetoric and a negativity of hiddenness that draws out Job's chaos to the end. Furthermore, God's theophany in the storm overwhelms Job with the sublimity and wonder of the untamable created order rather than explaining the reasons for his suffering. Job's subsequent repentance

www.kci.go.kr

(42:6) is not a submission to doctrine, but a voluntary and active 'aesthetic correction' of one thoroughly overwhelmed by the eeriness and beauty of the universe.

Ultimately, this discussion rebels against a fictitious faith that seeks only positivity without pain. God's anger toward the friends who enforced smooth positivity and His final approval of Job, who confronted the rough truth, corroborate this. This paper argues that only when confronting abrasive disharmony and God's hiddenness can one ultimately reach the beauty of salvation and the essence of wisdom theology concealed within suffering.

key words

the book of Job, the aesthetic of hiddenness, God's silence, resistance language, negativity, pathos, art, philosophy, beauty, truth

투고일 : 2026년 04월 17일

심사일 : 2026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5월 06일

www.kci.go.kr